



Analyst 유승우 · 02-3773-9180 · yswbest@sk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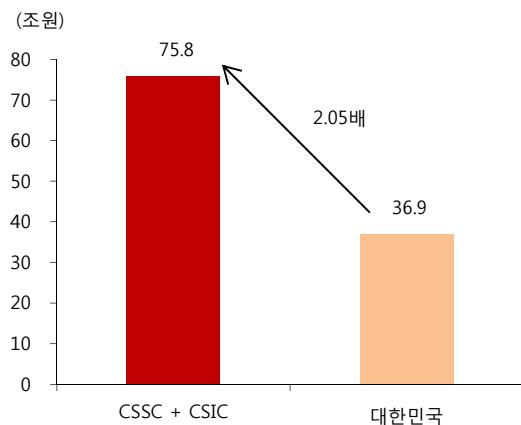
Issue Comment

- ✓ 지난 일주일간 조선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함
- ✓ 중국 CSSC, CSIC 의 합병으로 저가 경쟁 치열해질 전망
- ✓ LNG 탱커 용선료도 어느덧 \$44,000/day 수준으로 급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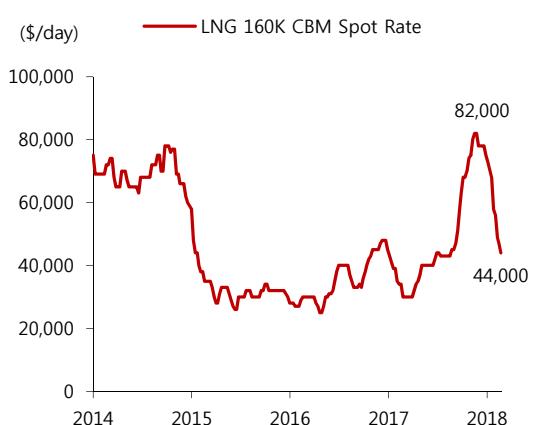
최근 조선주 주가 조정 point 점검: 중국發 악재와 잣아든 발주 모멘텀

지난 일주일간 현대중공업 -12.2%, 삼성중공업 -5.4%, 대우조선해양 -9.3%, 현대미포조선 -5.5%의 주가 조정이 발생했다. 투자심리 악화는 중국 CSSC와 CSIC 간의 합병 이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. CSSC와 CSIC는 각각 7 개의 산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 합병시 14 개의 도크를 보유하게 된다.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합병 CSSC, CSIC는 718 억불(75.8 조원) 규모이며 국내 4 사 합산 매출액은 36.9 조원으로 중국 조선사가 약 2.05 배 더 크다. 지난 1 월 8 일 발간한 "SK Cyclical Bulletin Release 5: 방향성을 달리할 수주산업, 건설과 조선"에서 밝혔듯이 조선업의 시장 경쟁 구도가 Only-Price Market 구간으로 접어들었다. 이 외중에 중국 합병 법인은 비대해진 영업력으로 저가 수주 경쟁을 더 공격적으로 펼칠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. 단순 저마진 수주 우려가 아니라 수주 자체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. 게다가 동절기 가스 수요 증대로 일시적으로 투기성 발주가 있었던 LNG 탱커 발주 환경도 급격히 냉랭해지고 있다. 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LNG 탱커 스팟 용선료가 어느덧 \$44,000/day 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.

합병 중국 조선사와 한국 조선사의 매출 규모는 2.05 배 차이



LNG 탱커 스팟 용선료는 어느덧 \$44,000/day



자료 : Bloomberg, DataGuide, SK 증권

자료 : Clarksons Research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